

##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

신 경 숙\*\*

### 〈국문초록〉

『가곡원류』의 편찬 연도는 1876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집은 완성되자마자 일·이십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십여 권이 넘는 이본을 산출했다. 그만큼 19세기 후반 『가곡원류』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십여 년 후인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가곡원류』의 향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20세기 직전까지도 거둬 필사되며 확산되어 갔던 『가곡원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20세기 초 『가곡원류』의 급격한 단절에 의문을 품고, 20세기 초 『가곡원류』 전승의 향방을 추적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풀어갈 단서로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하순일 편집의 아주 작은 가집 『가곡원류』에 주목했다. 이 가집은 남창 한바탕의 사례를 보여주는 기초 교본 역할에 적절하도록 제작되었다. 이 가집을 편집했을 당시, 하순일은 근대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기관인 '조양구락부'의 가곡교사였다. 조양구락부와 관련 깊은 이 가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음악연창과 문학사설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 편집본은 19세기 『가곡원류』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당대 연창의 실제임도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20세기 초에도 『가곡원류』는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조양구락부의 성격 분석을 통해, 이 기관이 막강한 후원조직에 힘입어 운영되었음도 확인했다. 하순일 편집본은 조양구락부라는 기관이 지닌 영향력을 통해 20세기 초 가곡 향방에 결정적 전승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핵심어** : 가곡원류, 하순일, 가곡, 조양구락부, 남창, 한바탕, 교본, 연음표, 율당삭대엽, 소용, 정악유지회

\* 본 연구는 2006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

## 1. 본고의 관심

19세기 가집사에서 『가곡원류』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가곡원류』의 편찬 시기는 1876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목되는 점은 완성되자마자 일·이십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십여 권이 넘는 이본을 산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19세기 후반 『가곡원류』의 영향은 막강했다. 이는 20세기로부터 불과 십여 년 전 일일 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가곡원류』의 향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20세기 초 『대동풍아』 『정선조선가곡』과 같은 가곡가집이 출간되지만, 이들 가집과 『가곡원류』의 관련성은 없는 듯하다. 오히려 이들 근세 초 가집들은 악곡, 편집체제 등 기본적인 항목부터 『가곡원류』와는 뚜렷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0세기 직전까지도 거듭 필사되며 확산되어 갔던 『가곡원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곡은 지나치게 고급화의 길을 걸어 점차 대다수 향유자들의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근대라는 공간에 밀려들어온 새로운 노래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등의 언급들이 있었다. 현행가곡에 이르기까지 가곡이 걸어온 길을 생각하면 이러한 언급들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본고의 관심은 이상과 같은 가곡 전승 일반에 있지 않다. 본고는 19세기 말까지도 파급력이 컸던 가집 『가곡원류』가 20세기 초 걸어진 향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910년 하순일이 편집한 『가곡원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가집의 성립과 내용 탐색을 통해, 근세 초 『가곡원류』 향방의 한 가닥을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 2.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용도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는 단국대학교 도서관에 소장<sup>1)</sup>되어 있다. 이 가집을 ‘하순일 편집’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사실 때문이다. 첫째, 가집의 마지막 작품 아래에 기록된 “庚戌 仲冬下院 晋州 后人 河順一 編輯”이라는 언급 때문이다.<sup>2)</sup> 이 가집은 경술년(1910) 11월 말 하순일이 편집한 것이다. 둘째, 일반적인 『가곡원류』 이본들처럼 수백 수 작품목록들이 아닌 단 24수만을 수록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양적으로는 비교가 불가능하리만큼 아주 적은 분량임에도 이 가집은 미완성본이 아니다. 매우 작지만 완결된 편집체제를 갖추었으므로 소가집 제작의 어떤 의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하순일 편집본은 『가곡원류』의 일반적인 이본 생성과는 다른 방법과 의도로 만들어진 아주 작은 가집이다. 그러면 먼저 가집의 독특한 형태부터 확인해보기로 한다.

- ① 歌曲源流
- ② 論曲之音
- ③ 平調 羽調 界面調
- ④ 歌之風度形容十五條目
- ⑤ 朴孝寬 跋
- ⑥ 長鼓長短點數排布
- ⑦ 男唱 羽調 초삭대엽, 우조 이삭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삭대엽, 소용, 율당삭대엽, 界面 초삭대엽, 계면 이삭대엽, 계면 중거, 계면 평거, 계면 두거, 계면 삼삭대엽, 만황, 농가, 계락, 우락, 일락, 편락, 편삭대엽, 일편, 여흥삭대엽
- ⑧ 漁父詞

1) 이 가집에는 標題가 없다. 그러나 내용 중 첫 부분에 ‘歌曲源流’(宋 吳曾의 『能改齋謏錄』의 일부)條가 있어, 박효관이 찬한 『가곡원류』 이본임을 쉬 알 수 있다. 도서목록의 제명에도 역시 『가곡원류』로 되어 있다.

2) 마지막 악곡 ‘餘興數大葉’의 “이려도” 작품 다음에 있는 기록이다.

위 각 항목 중에서 ①에서 ⑥까지는 가곡 이론들이다. 이는 『가곡원류』 이본들에서 공히 제일 앞부분에 실리던 것으로 이 가집에서도 수록 위치와 내용이 같다.<sup>3)</sup> ⑦은 가곡의 악곡순서이다. 이 순서는 『가곡원류』 이본들과 일치한다.<sup>4)</sup> 이들 악곡에는 각기 1수씩 - 편락은 2수<sup>5)</sup> - 의 작품들이 실려 있고, 작품마다 연음표가 그려져 있다. ⑧은 가사 <어부사>이다. <어부사>는 『가곡원류』 이본들에서 가집 말미에 실리던 작품으로 이 가집에서도 역시 수록위치와 내용이 같다. 이와 같이 이 가집의 편집 구성은 『가곡원류』 그대로이다. 다만 차이는 ⑦ 악곡에 실리는 작품수의 차이뿐이다. 다른 이본들이 악곡마다 십여 수에서 수십 수 사설목록을 구비한데 반해 하순일 편집본은 오직 한 수만을 수록하는 특이성을 갖는다.

그러면 악곡마다 1수씩만 수록한 의도는 무엇인가? 이는 이 가집의 본문인 ⑦작품들 첫 머리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래 기록은 첫 악곡명인 '우조 초삭대엽'의 앞뒤에 기술된 내용이다.

男唱 羽調 初數大葉 男唱 羽界面 一場第次

이 기술은 본 가집이 '남창'이고, 내용 전체는 '우계면 한바탕 차례'.

- 
- 3) 이중 ⑤ 박효관 발문은 이본에 따라 책의 서두 혹은 말미에 실리기도 한다. 서두에 수록된 것은 『화원악보』이고, 말미에 수록된 것은 『(국악원본)가곡원류』 『(규장각본)가곡원류』 『(가람본)가곡원류』 『(일석본)가곡원류』이다. 이들 이본 가운데 본고는 이능우 소장본인 『화원악보』 『(일석본)가곡원류』는 직접 보지 못해, 심재완의 『시조의 문헌적 연구』(세종문화사, 1972, 58, p.60)를 통해 확인했다.
  - 4) 맨 마지막의 '여홍삭대엽'은 『가곡원류』 이본들의 '歌畢奏臺' '歌畢奏臺' '歌終奏臺' '闕終唱臺' '티평가'와 같다.
  - 5) 편락만 2수가 실린 이유는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하 '악곡마다 1수씩'이라고 기술할 때에도 이에겐 언제나 '편락은 2수'라는 사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를 제시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즉 하순일 편집본은 일반적인 『가곡원류』 이본들처럼 수많은 작품목록 수집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남창 한바탕 차례’를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 별도로 편집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하순일은 왜 ‘남창 한바탕’ 제차를 보여주는 이러한 기초적인 독특한 형태의 가집을 만들었을까? 河順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생몰연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는 주로 근세 초 가곡의 대가 河圭一(1867-1937)을 설명할 때, 그의 사촌 형으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설명에 의하면 하순일은 부친 하중곤과 함께 운현궁 待命歌人이었다.<sup>6)</sup> 하규일의 첫 가곡 수업도 숙부인 하중곤을 통해서였다. 최근 발굴된 『승평곡』에 의하면 하중곤은 박효관의 ‘승평계’ 가단에도 참여했음이 확인된다.<sup>7)</sup> 말하자면 하순일은 일찍부터 박효관의 승평계 가단에서 활약한 이름난 가객집안 출신이고, 그 자신도 오랫동안 이름을 날리던 가객이었다. 따라서 이 가집의 ‘남창 한바탕’ 제차는 하순일 자신이 참고하기 위해 편집한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이 정도 기초적인 한바탕 작품과 연음표는 이미 수 십 년 동안 이름을 날리며 활약해 온 1910년의 하순일에게는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sup>8)</sup> 그렇다면 이 편집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편집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910

6) 성경린, 「조선말과 근대를 이은 궁중음악의 인맥」,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p.6.

7) 승평계 가단에 대해서는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pp.71-79)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최근 『승평곡』의 발굴로 구성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복, 「박효관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국악원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pp.131-187)와 김석배, 「승평계 연구」(『문학과 언어』 25집, 문학과언어학회, 2003, pp.251-278)에서 자세히 다루어졌다.

8) 하순일의 생몰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사촌동생인 하규일의 생년이 1867년이니, 그는 이보다 더 일찍 태어났을 것이다. 20세가 되어서야 가객으로 나섰다 치더라도 적어도 이미 30년 가까이 가객활동을 해왔을 것이다.

년 하순일의 행적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좀체 발견되지 않는 하순일의 이름이 1913년 朝鮮正樂傳習所 가곡교사 명단에서 발견된다.<sup>9)</sup> 朝鮮正樂傳習所의 전신은 調陽俱樂部인데, 조양구락부는 바로 근대 최초의 민간 음악교육기관이다. 이 단체는 朝鮮樂을 전습하면서 동시에 西洋樂을 받아들여지는 취지하에 출발한다. 조양구락부 첫 발기 모임은 1909년 9월에, 실제 발족은 같은 해 12월에 이루어진다.<sup>10)</sup>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이 가집은 하순일이 조양구락부 발족 후 약 1년 동안 가곡교사 생활을 하던 중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 24작품으로 된 남창용 기초 가집 편집은 바로 조양구락부 학생들의 가곡교습 필요 때문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하순일은 어떻게 조양구락부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조양구락부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발기인 명단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김경남 하순일 조남승 한석진 이병문 백용진 고우경 한규우 김현주 한용구

하순일은 1909년 9월15일 조양구락부 첫 모임부터 참여하고 있었음

---

9) 『朝鮮正樂傳習所一覽』, 『現在職員及教師』, p.25. 『조선정악전습소일람』은 1954년 5월 장사훈 선생이 베낀 수고본이 『낭만음악』 4권1호(1991.12)에 영인으로 실려 있다. 영인된 자료에 페이지가 없어, 본고에서는 이 자료의 표지를 1면 시작페이지로 하여 페이지를 매겼다. 이하 본고에서는 이 영인자료의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10) 『조선정악전습소일람』 자료를 기초로한 조양구락부·조선정악전습소에 대한 연구는 장사훈, 「한국최초의 민간음악 교육기관」, 『민족문화연구』 8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4, pp.1-33)에서 전면적으로 다루어졌고, 박은경, 「한국 최초의 민간음악교육 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 민족』 21집(민족음악학회, 2001, pp.161-182)에서 기존 논의들 중 일부 오류를 바로 잡고, 새로운 자료 보완을 통해 그 실체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11) 『조선정악전습소일람』, 『발기인』, p.10.

이 확인된다. 이 발기인 10인 가운데 5인이 조양구락부 발족 후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김경남, 이병문은 조선말기 거문고 三絶에 속하는 名人 들인데, 김경남은 음악부 교사장으로, 이병문은 춤·거문고 교사로 근무한다. 그 외 백용진은 양금 교사로,<sup>12)</sup> 한규우는 가야금 교사로, 하순일은 가곡 교사로 근무한다. 이같이 조양구락부 설립은 朝鮮樂의 名人 혹은 愛好家들 주축이었다. 바로 이들 조선악 명인들이 우리 음악을 잇기 위해 서로 뜻을 모아가던 1909년 발기모임 이전, 하순일은 당시 서울지역의 이름난 가객이었다. 이런 명인의 자격으로 조양구락부 발기인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조양구락부 발기부터 깊이 관여해오던 하순일이 발족 후 가곡교사로 근무하던 중 ‘남창 한바탕 차례’를 따로 편집했다. 말하자면 이 가집은 남창가곡 교본인 셈이다. 이 간단한 교본을 만들면서 그는 『가곡원류』의 전체 체제를 그대로 빌려 왔던 것이다.

### 3.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가곡내용들

하순일의 가객 활동 기간과 남창 편집본 완성 시기 등의 사실로 보아, 이 편집본을 통해 19세기말-1910년 전후의 가곡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편집본이 19세기 후반 『가곡원류』의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혹은 전체 체제만 빌려 온 것인지는 좀 더 분석을 요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창과 사설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2) 백용진이 양금 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1911년 6월부터이다. 백용진은 거부였는데, 조양구락부의 1909년 9월 첫 발기모임 장소가 그의 집이었다.

## (1) 연창의 실제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에서 가곡연창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연음표’, 둘째 ‘율당삭대엽의 변조 위치’, 셋째 ‘한바탕의 연창방식’. 이를 차례로 살펴 연창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단, 본고에서는 품의 실현에 대한 것은 다룰 수 없기에, 주로 연창 방식 중심으로 그 특징을 밝혀보기로 한다.

먼저 ‘연음표’의 내용을 알아본다. 연음표는 모든 작품에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사용되었고, 매 작품 옆에 붉은색을 사용하여 달필의 솜씨로 그려 넣었다.<sup>13)</sup> 이 편집본이 조양구락부 교본용이라는 점에서 연음표는 가곡 교습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했을 것이다. 1910년 이 연음표가 갖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순일 편집본과 국악원본<sup>14)</sup>의 연음표 비교가 필요하다. 박효관 시절로부터 어느 정도의 변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교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를 발견했다. 여기서 연음표 비교는 ‘동일 작품의 동일 글자에 사용된 동일 연음표’가 아닐 경우를 차이로 보았다.

## ‘하순일본과 국악원본 연음표 차이’

- 하순일 편집본에서만 나타나는 연음표 : 5작품에서 8곳<sup>15)</sup>
- 국악원본에서만 나타나는 연음표 : 3작품에서 3곳<sup>16)</sup>
- 兩本에서 서로 다르게 사용한 연음표 : 없음

- 
- 13) 『(하순일 편집)가곡원류』의 전체 필체는 매우 단정하고 뛰어나다. 또한 연음 부호와 곡목, 사설, 이론 항목을 표시하는 ○표는 모두 붉은 색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충분히 살렸다. 전문필사가의 솜씨로 보인다.
  - 14) 『가곡원류』 이본들 중에서 연음표가 가장 전면적으로 사용된 것이 국악원본이다. 한편 국악원본의 중대엽에는 연음표가 없는데, 『협률대성』에는 중대엽에도 연음표가 있다. 학계에서는 국악원본을 『가곡원류』의 最善本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도 이를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 15) 우조 평거의 3곳, 우조 삼삭대엽의 1곳, 계면 중거의 2곳, 계면 두거의 1곳, 계락의 1곳.
  - 16) 우조 초삭대엽의 1곳, 편락 첫수의 1곳, 편삭대엽의 1곳.



연음표는 대개 한 작품에서 6-14개 정도가 사용된다. 따라서 24작품에서 사용된 연음표 숫자는 평균잡아도 240개가 넘는다. 조사에서 발견된 총 11곳 외에는 모두 같은 위치에 똑같은 연음표를 사용했다. 따라서 양본의 차이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표를 보면 하순일 편집본이 더 많은 연음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하순일 편집본이 좀 더 정밀하고, 상대적으로 국악원본은 다소 연음표를 빠뜨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영인된 국악원본의 영인 상태는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온전한 연음표 확인이 쉽지 않다. 직접 원본을 확인할 경우 연음표 발견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차이 발생의 적은 숫자마저 더 줄어들 것이고, 그 결과 미미한 차이조차도 더욱 의미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양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단정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하순일 편집본은 19세기 『가곡원류』 연음표의 음악내용을 그대로 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울당삭대엽’에서도 발견된다.

三月三日 李白桃紅 九月九日 黃菊丹楓  
 靑帘에 술이 닳고 洞淵庭에 秋月인테  
 白玉盃 竹葉酒 가지고 玩月長醉 흐리라.<sup>17)</sup>

울당삭대엽 작품에는 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洞’자 우측에 ‘界’라고 작은 글씨를 써넣었다. 이는 ‘우조로 부르다가 ‘洞’자에서부터 계면조로 바꾸라’는 표시이다. 이 ‘界’ 표시는 국악원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다. 국악원본에는 5수 울당삭대엽 작품 가운데 ‘삼월삼일’과 ‘흐리나’ 두 작품에만 계면조로의 변조 위치를 표시했다.<sup>18)</sup> 울당삭대엽에서

17) 하순일 편집『가곡원류』 8번 작품.

18) 『(국악원본)가곡원류』 162번, 164번 작품이다. 여창 ‘울당삭대엽’에서는 이런 표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변조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는 다른 몇몇 가집에서도 나타난다.<sup>19)</sup> 이런 표시들은 가집이 단순히 사실 보존이 아니라 가창을 위한 대본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인데, 하순일 편집본은 『가곡원류』에서 기록한 이러한 가창실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바탕 연창방식’으로는 男唱 23곡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곡원류』와 일치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 순서는 이미 앞 장에서 제시했으나 우·계면, 소가곡<sup>20)</sup> 구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배치하여 다시 인용해본다.

우조 초삭대엽 이삭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삭대엽 소용  
 율당삭대엽  
 계면 초삭대엽 이삭대엽 중거 평거 두거 삼삭대엽  
 만황 농가 계락 우락 얼락 편락 편삭대엽 얼편  
 여흥삭대엽

이들 악곡 배열에서 주목할 부분은 ‘계면 소용’과 ‘한바탕 순서’ 두 가지이다. 먼저 ‘계면 소용’부터 보면, 이 악곡이 놓일 곳은 위 밑줄 친 ‘계면 삼삭대엽과 만황’ 사이이다. 그런데 하순일 편집본에는 ‘계면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계면 소용’이 근대 초와 현행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근세 초 전후에 만들어진 몇몇 가집의 비교를 통해 ‘계면 소용’의 등장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9) 『(하합본)가곡원류』에서는 『(국악원본)가곡원류』와 동일한 작품에서, 『협률대성』에서는 여창 49번에 나타난다.

20) 소가곡이라는 말은 『학포금보』(한국음악학자료총서 16, 국립국악원, 1984)에서 ‘얼룽’ 이하의 통낙편 악곡들을 지칭하면서 사용한 말이다. 초삭~삼삭대엽을 정격조로 보고, 얼룽 이하를 이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가곡원류』(1876)	(없음)
『해동영언』(1906-1907) <sup>21)</sup>	(없음)
『대동풍아』(1908) <sup>22)</sup>	‘어흠아’
『(하순일 편집)가곡원류』(1910)	(없음)
『가곡선』(1913) <sup>23)</sup>	(없음)
『정선조선가곡』(1914) <sup>24)</sup>	(없음)
『신가하규일선생약전』(1993) <sup>25)</sup>	‘어흠아’

‘계면 소용’이 19세기 이래 거의 나타나지 않음은 위의 자료상황과 같다. 오직 근세 초 『대동풍아』와 ‘하규일 전창’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작품은 ‘어흠아’ 한 작품뿐이다.

어흠아 귀 뉘옵신고  
 건너 불당의 동령 중이올러니  
 홀거사의 홀로 자시는 방안에 무시것 하러 와 계신고  
 홀거사님의  
 노감탁이 벗어 가는 말 곁에 내 고깔 벗어 걸러 왔읍네

‘어흠아’는 나머지 가집들에서는 모두 ‘우조 소용’에 수록되어 있다. ‘우조 소용’은 『(국악원본)가곡원류』에는 14수, 현행에도 4수나 실려 있어 가창이 활발했던 악곡이다. 이와 비교한다면 ‘계면 소용’은 가창 실질이 의심스런 곡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소용’은 처음 『삼죽금보』

21) 『해동영언』은 이상원, 『『만세보』 소재 〈해동영언〉의 텍스트성 연구』(『시조학 논총』 25집, 2006)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해동영언』은 단행본으로 만들어진 가집이 아니라, 신문 『만세보』에 1906.6.17~1907.6.29까지 매일 1수씩 총 111수의 고시조를 ‘해동영언’이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것들이다. 연재물이면서도 악곡표시를 잊지 않고 있다. 가집 출현이 드문 1900-1910년 사이 가곡 상황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가 된다.

22) 김교헌 편, 『大東風雅』(우문관, 1908).

23) 남악주인 찬정, 『歌曲選』(신문관, 1913).

24) 이해조 편, 『精選朝鮮歌曲』(신구서림, 1914).

25) 김진향 편, 『善歌河圭一先生略傳』(예음, 1993).

(1841)에 우·계면이 모두 실렸으나, 이후 대부분의 악보에서 ‘계면 소용’이 누락되어 가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sup>26)</sup> 악보에서 확인되는 ‘계면 소용’의 상황이 가집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하순일 편집본은 이같은 ‘계면 소용’에 대한 당대 악곡 경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이는 『가곡원류』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현상이므로, 하순일 편집본은 악곡 부분에서도 『가곡원류』를 잘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하순일본과 비슷한 시기의 『대동풍아』와 하순일본 이후를 잇는 ‘하규일 전창’은 어떻게 ‘계면 소용’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특수한 악곡상황의 이유를 현재로써는 온전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추측컨대, 일차적으로는 드물기는 해도 ‘계면 소용’을 즐긴 계층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우조와 계면조’를 정확히 대응시키려는 형식 추구, 즉 ‘우조 소용’에 대응되는 ‘계면 소용’을 갖추어 형식적 균형을 추구하려는 음악 경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계면 소용’의 가창기회가 적었음을 분석한 김영운의 연구결과로도 짐작되는 바이다. 김영운은 소용의 樂想이 계면조보다는 우조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계면 소용’은 가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악상에 대해서는 “소용의 음악적 특징을 ‘떠들석하고 높다’고 표현하거나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소나기 달구치는 하늘에 번개처럼 오가는 나는 제비와 같다’고 하는데, 이러한 악곡의 분위기가 ‘哀怨 悽愴’한 계면조보다 ‘淸壯澈勵’한 우조에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27)</sup> 이러한 악곡 특징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뒤늦게 일부 가집에서 ‘계면 소용’을 갖춘 것은 한바탕 순서에서 우·계면 한 쌍을

26) 김영운, 『가곡연창 형식의 역사적 전개양상』(민속원, 2006), pp.169-175. 이 연구에서는 ‘소용’ 악곡 출현 양상을 琴譜와 歌集 전체에서 추출하여 세밀한 비교 논증을 시도하고 있다.

27) 김영운, 같은 책, p.175.

정확히 대등시키려는 형식중시와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순일 편집본이 당대 일각에서 시도하던 ‘계면 소용’ 갖추기를 따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당대 보편적인 가창실질을 보여주는 것이요, 동시에 19세기 『가곡원류』의 악곡 경향을 잘 계승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한바탕 순서’에 대해 하순일 편집본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연창순서를 말해주고 있어 주목을 끈다. 하순일본의 ‘계면 초삭대엽’과 ‘계면 이삭대엽’ 악곡명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다.

계면 초삭대엽은 우계면 합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계면 초창 때에는 사용한다.

(界面 初數大葉 羽界面合奏不用 但界面時初唱)

계면 이삭대엽은 우계면 합주에 사용한다. 단 계면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界面 二數大葉 羽界面合奏用 但界面時不用)

이 설명에 따라 ‘남창 한바탕’을 연창한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계면 한바탕>에서는 ‘우조의 모든 곡들’을 부른 후, 변조를 위해 ‘울당삭대엽’을 부르고, 계면조로 넘어가서는 ‘초삭대엽’을 부르지 않고 건너뛰어 ‘이삭대엽’으로 넘어가 ‘나머지 곡들’을 차례로 모두 불러서 마친다. <계면 한바탕>에서는 계면의 첫 곡 ‘초삭대엽’을 부르고, 다음 곡인 ‘계면 이삭대엽’을 건너뛰어 ‘계면 중거’로 넘어가 ‘나머지 계면 곡들’을 차례로 모두 불러서 마친다.

현재 이상과 같은 한바탕 연창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설명이 『(가람본)가곡원류』의 ‘계면 초삭대엽’과 ‘계면 이삭대엽’에도 똑같이 실려 있어 흥미롭다.

界面 初數大葉 羽界唱合奏不用 但界唱時初唱  
 界面 二數大葉 羽界唱合奏用 但界唱時不用

가람본의 설명은 하순일 편집본과 동일하다.<sup>28)</sup> 단지 ‘羽界面’을 ‘羽界唱’으로, ‘界面’을 ‘界唱’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런 기록들로 보아, 1910년대의 남창 한바탕은 쏘曲을 다 부르지 않고, ‘우계면 한바탕’에서는 계면 초삭대엽을, ‘계면 한바탕’에서는 이삭대엽을 부르지 않고 건너뛰는 연창방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불리야 하는 한바탕 짜기의 악곡적 혹은 미학적 근거를 알 수는 없다. 다만 추측컨대, 우계면 모두를 부를 때, 계면 초삭대엽은 첫 곡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생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계면만 모두 부를 때는 초삭대엽은 첫 곡이니 반드시 불리야겠지만, 이삭대엽은 남녀창에서 보듯이 본디 남창의 담당 곡이 아니어서 이를 건너뛰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진한 부분을 남겨둔 채 이 사실 기록만을 놓고 본다면, 오늘날 이러한 한바탕 순서는 특이하게만 보인다. 그러나 가람본과 하순일본이 전하는 이 연창순서가 당시로써는 그리 유별난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왕직 아악부에서 촉탁으로 근무하며 우리 음악자료를 정리했던 안확이 당대 가곡 연창에 대해 전하는 다음 글은 이러한 연창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금은(필자 : 현재는) 고법(古法)은 33법 중 삭엽(數葉) 24법만 행하는데, 기중에도 계면조의 초삭대엽(初數大葉)·소용(騷嶺)이는 망하고 오직 22곡만 창한다.<sup>29)</sup>

28) 『(가람본)가곡원류』와 『(하순일)편집본』이 모두 동일본을 저본으로 전사 혹은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연창순서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9) 안확, 「歌聖 張竹軒 逝去百二十年」, 『조선』 1929.11월호, 『한국예술총집』 음악편 I (대한민국예술원, 1987, p.27)에서 재인용.

안확은 1929년 당시 가곡악곡 중에서 ‘계면 초삭대엽과 계면 소용’은 불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두 악곡 중 ‘계면 소용’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안확은 ‘계면 초삭대엽’도 불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하순일본과 가람본의 연창순서 설명과 일면 상통한다. 이 두 본에서는 ‘계면 초삭대엽’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우계면 한바탕에서는 ‘계 초삭’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으니, 다른 악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창 실질이 약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연창순서에 대한 하순일 편집본의 설명은 이 가집만의 특이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당대 연창 실질의 한 경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하순일 편집본의 연음표, 율당삭대엽의 변조 위치, 계면 소용에 대한 것들은 19세기 『가곡원류』의 연창내용이 20세기 초에도 충실하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바탕 연창순서에서의 계면 초삭·이삭과 관련된 내용은 19세기 『가곡원류』 시대부터 있어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20세기 초 연창 경향인 것만은 분명하다.

## (2) 사설의 경향

먼저 하순일 편집본의 사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羽調 初數大葉	“天皇氏”
二數大葉	“江湖에”
中舉	“滄浪에”
平舉	“실별 지자”
頭舉	“구름이”
三數大葉	“桃花 李花”
搔聳伊	“어제 밤도”
栗糖數大葉	“三月三日”

30) 가곡 초장의 첫 어절을 제목 삼아 제시한다.

界面 初數大葉	“窓 밭계”
二數大葉	“田園에”
中舉	“靑山이”
平舉	“말업순”
頭舉	“岳陽樓에”
三數大葉	“博浪沙中”
蔓橫	“赤壁水火”
弄歌	“萬里長城엔”
界樂	“鐵驄馬”
羽樂	“우슬부슬”
箏樂	“碧紗窓이”
編樂	“鳳凰臺上” “솔 아래에”
編數大葉	“長安 大道”
箏編	“寒松亭”
餘興 太平歌	“이리 ㅎ야도”

『가곡원류』 850여 수 작품 가운데, 하순일 편집본의 작품들은 오직 한바탕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되었다. 따라서 이 사설들은 『가곡원류』 전체에서가 아닌, 한바탕 사례들과의 관련성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 사설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당대의 또다른 한바탕 사례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한테 당대 한바탕 용례는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는 현행으로 전승된 ‘하규일 전창’과 1917년 작성된 ‘최영년의 한바탕’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그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하규일 전창’은 하규일이 1926년부터 이왕직 아악부에서 촉탁신분으로 가르쳤던 곡들을 말한다. 하순일 편집의 경우처럼 傳習用이다. 이 곡들은 84곡이 전해지고 있는데,<sup>31)</sup> 현행 가곡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그

31) 김진향 편, 앞의 책, pp.206-577. 필사본 형태의 남창·여창 악보와 사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사설과 악보는 아악부 아악생 제2기 출신이었던 두봉 이병성이 가곡수업을 시작한 1926년부터 1950년까지 정리 수정 보완한 것이다. 1955년 동기 박영복이 그대로 옮겨 적은 악보를 이혜구 선생이 보관해 오던 것을 영인해 실었다.



런데 이 하규일은 하순일보다 조금 늦은 만 2년 후 조선정악전습소에 참여한다. 따라서 이왕직 아악부 시절의 전승곡들은 이미 조선정악전습소에서부터 형성되어 갔을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하규일 전창’은 하순일 한바탕과의 관련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최영년의 한바탕’은 그의 글 「古今歌謠의沿革」에 실려 있다.<sup>32)</sup>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째, ‘가곡’ 한바탕, 둘째, ‘시조 삼장’, 셋째, ‘가곡과 시조의 연원’이 그것이다. 바로 이 글 첫 번째 ‘가곡 한바탕’은 1910년대의 또 다른 한바탕 용례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최영년 같은 글 두 번째의 ‘시조삼장’에 대한 내용이 초·중·종장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10년대에 형성되어 있던 ‘시조 편가’ 연창방식에 대한 언급이라는 사실 때문이다.<sup>33)</sup> 즉 최영년 글의 ‘가곡·시조’ 연창방식은 모두 당대 연창실질을 설명한 글이라는 것이다.

먼저 ‘하규일 전창 84수 사설’과 비교해보면<sup>34)</sup>, 악곡별 사설들이 단 3곡을 빼고는 모두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 사설 3수는 하순일 한바탕에는 있으나 하규일 전창에는 없는 것이다. 그 사설은 다음과 같다.

계면 평가-“말업슨” 만황-“적벽수화” 우락-“우슬부슬”

32) 太華山人, 「古今歌謠의沿革」, 『조선문예』 1호(조선문예사, 1917.4), pp.54-66. 태화산인은 최영년으로 그는 자주 이 필명으로 활동했다. 기존에 주로 한시작가로 알려진 최영년은 최근 이상원(앞의 논문)에 의해, 근세 초 가곡·시조를 널리 알린 인물로 새로이 분석되었다.

33) 권순희, 「시조삼장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집(한국시조학회, 2004), pp.197-215.

34) 김진향 편, 앞의 책에서 남창(206-426)만 비교했다. 24작품과 84작품의 비교로 보면, 비교 차이가 크다. 그러나 비교는 악곡별로 이루어지고, 하규일 사설들은 악곡별로 적게는 1수, 많아도 6수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악곡마다의 수십 수 사설을 놓고 각각 다른 사람이 대표사설을 뽑아냈음에도 그 일치도는 대단히 높다. 이는 당대에 각 악곡의 대표사설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최영년 22수 사설'과 비교하면, 9수가 일치하고 13수가 다른 사설이다. 하순일 사설과 일치하지 않는 최영년 사설은 다음과 같다.

우 초삭-“남훈전” 우 중거-“인심은” 우 삼삭-“추강에” 우 소용이-“아마도” 계 중거-“청풍북창하” 계 평거-“반넘어” 계 두거-“옥을 돌이랴” 계 삼삭-“석양에” 열룡-“십재를” 농가-“남훈전순제금을” 우락-“균불전” 열락-“백구논” 편락-“나무도”

일치도는 40%로 앞서의 하규일 전창에 비해 매우 낮다. 그러나 하순일, 최영년 두 사람의 선별작업은 매번 수십 수 사설들 중에서 각각 오직 1씩만 뽑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40%나 동일 사설을 뽑아냈으니 이는 우연일 수 없다. 더욱이 하순일은 당대 가객이었고, 최영년은 악부시집 『해동죽지』·설화집 『실사총담』·소설 『우의』 『옹두의 춘가』 등을 낸 신지식층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인물들이다.<sup>35)</sup> 따라서 이들이 보여준 이 정도 일치도는 당대 가곡계에 대표사설이 상당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시기 악곡별 대표사설 성립은 최영년과 하규일 사설의 비교를 통해 더욱 입증된다. 이들 간 비교에서 불일치는 방금 검토한 하순일·최영년 간 불일치 작품들 중 밑줄 친 단3수뿐이다. 이는 앞서 하순일·하규일본 비교와 같은 수치이다. 이처럼 사회적 토대가 다른 사람 사람들이 선택한 대표사설에서 나타나는 높은 일치도는 당시 악곡의 대표사설들이 상당수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sup>36)</sup>

35) 최영년의 신소설 작가 최찬식의 부친이다.

36) 가곡 악곡별 대표사설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이 좋은 참고가 된다. 권오경, 『고

이러한 사실들은 20세기 초에 한바탕을 짜기 위한 대표사설군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하순일 한바탕 사설이 『가곡원류』 850여수를 편집한 것이기는 하나, 그 실제 내용은 당대 가곡 향유 자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던 '악곡의 대표사설'을 반영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악곡 대표사설군의 확립은 이 시기 갑자기 생길 수 없고, 오랜 세월 연창경험에 의해 가능할 수 있는 시대취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순일 한바탕 사설들은 그 개인이 아니라, 오래 전 19세기 『가곡원류』 시절부터 향유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애창되어오던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하순일 편집본과 조양구락부

하순일 편집본은 1910년대까지 전승되어 온 『가곡원류』, 그 중에서도 남창 한바탕의 전범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편집본은 기초용 교본 형태로 조양구락부 내의 필요를 위해 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 『가곡원류』 편집본의 영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는 조양구락부의 성격과 관련될 것이다.

조양구락부 발기인 규약을 보면 사업은 크게 '肄習'과 '教授' 두 가지로 계획되었고, 이는 창립 후 '肄習科' '教授科' 설치로 구체화되었다.<sup>37)</sup> '肄習科'의 이습은 익힌다는 뜻으로 이미 음악을 배운 기성 음악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연주기술을 연마하는 부서를, '教授科'는 초보자를 모집

악보 소재 시가문학연구』(민속원, 2003). 김영운, 앞의 책. 권순희, 「가곡 연창 방식에서 중대엽(中大葉) 한바탕의 가능성」, 『민족문화연구』 44집(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이 중 김영운의 저서는 시기마다의 대표사설의 흐름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도표로 정리되어 있다.

37) 『조선정악전습소일람』 제3 「규약」, pp.10-11.

하여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sup>38)</sup> 가곡교습을 위해 입학한 학생은 물론 조양구락부 관계 인사들의 가곡풍류에도 기본적인 교본은 필요했을 터이니, 하순일 편집본은 이 두과 모두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초보자와 가곡애호가 모두에게 참고가 된 가집이라면, 이 가집의 영향력은 매우 폭넓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조양구락부 후원회 규모를 통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조양구락부는 1909년 9월 첫 발기모임을 가졌는데, 증언에 의하면 약 일 년 전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으며 이때부터 이미 후원회 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조양구락부 창립의 발의는 융희2년(1908년) 11월의 일이다. 4.5백 석의 비교적 부유한 편인 前監察 白瑢鎭은 음악을 애호했을 뿐만 아니라, 양금에도 조예가 깊었다.

백용진을 중심으로 몇몇 국악 애호가들은 그해 11월에 다동 소재 백용진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숙의한 끝에 그 당시 귀족회 회원을 끌어 들이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리고 융희2년(1909) 1월에는 朴泳孝의 힘을 빌어 고종황제로부터 樂道獎勵金을 받기 위한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sup>39)</sup>

조양구락부는 구상 단계에서부터 귀족후원회 조직 계획을 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영효를 통해 고종황제로부터 음악장려금을 받아낼 교섭까지 벌였던 것이다.

첫 후원회는 왕족 이준을 총제로 한 8명의 임원,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출발한다.<sup>40)</sup> 이후 1911년 2월에는 박영효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正樂維持會'라는 이름으로 임원 9명, 천성회원 50명, 유지회

38) 장사훈, 앞의 논문, p.16.

39) 장사훈, 앞의 논문, pp.6-7 재인용.

40) 『조선정악전승소일람』, 『제7 정악유지회』, pp.32-33.

원11명 총 70명으로 발전한다.<sup>41)</sup> 그러나 구전에 의하면 실제로는 200여명을 회원으로 가진 큰 후원회였다고 한다.<sup>42)</sup> 정악유지회 정관에 의하면 이들 후원회원들은 매월 일정 회비를 내게 되어 있다. 이 정악유지회는 다시 4개월 후인 1911년 6월 그동안 협상을 벌여왔던 황실 장려금을 거액의 일시 하사금과 매달의 보조액으로 받아내기에 이른다. 이러한 거대한 후원기금 조성을 계기로 조양구락부는 곧바로 발전적 개편을 단행해 조선정악전습소로 거듭난다. 조양구락부와 조선정악전습소는 학생들로부터 입학금과 월사금을 받는 외에, 이와 같은 거액의 후원금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양구락부는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의 후원회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영도 후원조직의 비호아래 가능했다. 조양구락부는 민간 차원의 작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귀족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영되었던 단체였던 것이다. 당시 교사 명단에 함화진과 같은 이왕직 아악부 소속 관리들이 올라있는가 하면, 이 기관의 일체 내용을 기록한 『조선정악전습소일람』 자체가 이왕직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것<sup>43)</sup>도 이러한 성격을 잘 말해준다. 따라서 하순일 편집본이 조양구락부 가곡 교본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1910년대 가곡 향방에 거의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가곡은 한 번도 공적 음악교육기관의 교육과목에 포함된 적이 없다. 1910년대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때 황실과 귀족계급으로부터의 전격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된 조양구락부의 가곡교습에서의 하순일 편집 교본은 『가곡원류』의 正典化를 완성할 만한 것이었다. 19세기 『가곡

41) 『조선정악전습소일람』, 「제7 정악유지회」, pp.31-32, 「제9 찬성원 급 유지가씨 명」, pp.6-38.

42) 장사훈, 같은 논문, p.12.

43) 『조선정악전습소일람』 p.52. 조선정악전습소장이었던 韓錫振이 명치44년(1911) 당시 이왕직 장관 閔丙奭에게 사업정황을 보고한다는 공문내용이 있다.

원류』는 하순일이라는 가격의 편집 교본을 통해 그리고 조양구락부라는 교육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20세기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5. 결론

본고는 하순일 편집 『가곡원류』의 성립이 조양구락부 내의 남창교본으로 제작되었고, 그 내용은 음악연창과 문학사설 모두 19세기 『가곡원류』를 충실히 계승한 것이었음을 살폈다. 약식형태로 편집되어 얼핏 20세기 들어 한 개인의 고답적인 복고취향으로 만들어진 가집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은 당대 연창의 실제와 시대취향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가곡은 조선시대 내내 여항 풍류음악으로 성장했다. 하순일 편집본을 통해본 가곡은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민간음악으로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다. 조양구락부와 조선정악전습소는 공공 교육기관이 아닌 사설 교육단체이면서도 막강한 후원조직에 의해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음악교육기관이었다. 동시에 이 단체는 이습과를 통해 풍류회 성격도 겸했다. 이는 조선후기 풍류방의 전통을 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교육기관의 가곡교습과 풍류회를 통해 『가곡원류』는 여전히 20세기 가곡을 이끌고 있었다.

한편 현행 하규일 전창은 박효관 노래에 직접 연결된다고 전해지고 있다.<sup>44)</sup> 그러나 박효관은 1800년생이고 1880년 작고했다. 하규일은

---

44) 함화진은 「유일한 古歌의 권위 河圭一翁의 長逝」(『조광』 3권7호, 1937.7)라는 글에서 하규일이 박효관에게서도 배웠다고 전한다. 구자균은 『조선평민문학사』(민학사, 1974, p.107)에서 『가곡원류』를 편찬 시 박효관, 안만영, 김윤석, 하규일이 함께 했다고 전한다.

1867년생이다. 따라서 박효관 작고 당시 13세에 불과한 하규일이 박효관 문학에서 배우거나, 승평계에 참여하거나, 『가곡원류』 편찬에 관여했을 확률은 거의 없다. 박효관과 하규일 사이에는 하중곤 하순일 부자, 특히 20세기 초 조양구락부 교사생활을 한 하순일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판단된다. 박효관의 가곡으로부터 현행에 이르는 계보 사이에는 ‘가객 하순일’ 그리고 ‘하순일 편집 남창 한바탕’이 놓여 있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하순일 편집)가곡원류』,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국악원본)가곡원류』  
 『(하합본)가곡원류』  
 『(가람본)가곡원류』  
 『협률대성』  
 『朝鮮正樂傳習所一覽』, 『낭만음악』 4권1호, 1991. 12.  
 김교헌 편, 『大東風雅』, 우문관, 1908.  
 남악주인 찬정, 『歌曲選』, 신문관, 1913.  
 이해조 편, 『精選朝鮮歌曲』, 신구서림, 1914.  
 김진향 편, 『善歌河圭一先生略傳』, 예음, 1993.  
 안화, 「歌聖 張竹軒 逝去百二十年」, 『조선』 1929. 11월호.  
 太華山人, 「古今歌謠의 沿革」, 『조선문예』 1호, 조선문예사, 1917. 4.  
 함화진은 「유일한 古歌의 권위 河圭一翁의 長逝」, 『조광』 3권7호, 1937. 7.  
 구자균, 『조선평민문학사』, 민학사, 1974. p.107.  
 권두환, 「조선후기 시조가단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pp.71-79.  
 권순희, 「시조삼장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pp.197-215.  
 권순희, 「가곡 연창 방식에서 중대엽(中大葉) 한바탕의 가능성」, 『민족문화연구』 44집,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6. pp.31-62.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집, 문학과언어학회, 2003. pp.251-278.  
 김영운, 『가곡연창 형식의 역사적 전개양상』, 민속원, 2006. pp.169-175.

- 박은경, 「한국 최초의 민간음악교육 기관 조선정악전습소 연구」, 『음악과 민족』 21집, 민족음악학회, 2001. pp.161-181.
- 성경린, 「조선말과 근대를 이은 궁중음악의 인맥」, 『이왕직 아악부와 음악인들』, 국립국악원, 1991. p.6.
- 이동복, 「박효관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14, 국립국악원, 2002. pp.131-187.
- 이상원, 「『만세보』 소재 〈해동영언〉의 텍스트성 연구」, 『시조학논총』 25집, 한국시조학회, 2006. pp.211-237.
- 장사훈, 「한국최초의 민간음악 교육기관」, 『민족문화연구』 8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74. pp.1-33.

<Abstract>

The completion of the 『Gagogwonryu』 was edited by Ha  
Soon-il

Shin, Kyung-Sook

Until the late 19th century, 『Gagogwonryu(歌曲源流)』 was a collection of songs which had powerful influence on Gagog tradition. However, its role on Gagog(歌曲) tradition since then is less well known. Generally, it is presumed that Gagog tradition might disappeared by giving way to modern song genre.

So this article question that 『Gagogwonryu』 became extinct rapidly between the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and follow 『Gagogwonryu』 tradition of early 20th century. Gagog instruction for beginner had a clue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instruction was written by Ha Soon-il(河順一) who was a teacher and singer in a



private music institute, named 'ChoyangGurakbu(調陽俱樂部)'.

Accordingly, this article has processed two phases in order to find out this question. First of all, this article analyzed *Gagog* instruction that Ha soon-il edited.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Gagog* instruction included the whole 『*Gagogwonryu*』's contents in the 19th century and was transmitted actively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Second, this article found out 『*Gagogwonryu*』 tradition of the early 20th century by analyzing character of *ChoyangGurakbu*. And also this article discovered *ChoyangGurakbu* had been managed by an vigorous aid association. *Gagog* instruction for beginner written by *Ha Soon-il* had spreaded from strength to strength in the early 20th century.

**Keywords** : *Gagogwonryu*. *Ha Soon-il*(하순일). *Gagog*. *Choyang Gurakbu*(조양구락부). the male song. textbook. *yeoneumpyo*(연음표). *yuldangsakdaeyeop*(울당삭대엽). *soyong*.(소용). *jungak-yujihoi*(정악유지회)

논문투고일 : 2006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월 7일